

## 「동북 헬프」 부로그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

「후쿠시마의 현실—후쿠오카 모모코의 목소리」주안에서

찌바현 마쓰도시 후쿠오카 모모코

2013년 7월 6일

요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와카미 나오야 목사님과 인연이되어 「동북 헬프」에 도움을 받게된 후쿠오카 모모코입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로서, 약한 체질을 가져 그다지 외출도 할수없는 사람입니다.

2011년3월11일. 대재해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보고만있지 못한 성격인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이없을까 생각하여, 조일 신문을 보고, 어떤 부부의 지원을 시작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의 집에 있는 침구를 확인하고, 의류·약품·식기·소모품·먹을것등 도움이 될만한것을 집안에서 체크하여, 피난소에 있는 부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피난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것을 알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부탁한 결과 많은 사람들도 참여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활동을 시작할때 걱정이 되어 잠을 못 이룰때도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모포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모포가 모여질까? 하고, 그러나 정말로 이상했습니다. 어디라고 할것없이 피해자가 필요한 물건들이 모여졌습니다. 피해자로부터 SOS의 전화가 오면, 곧 지원자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그것은 언제나 피해자가 지금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습니다.—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움직이고 계시다는것을. 지원자를 연결 시켜 주시는것도 우리 하나님, 피해자를 연결 시켜 주시는것도 우리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에 불과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활동에 대표자는 하나님, 우리들은 사원, 잘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피해자의 지원자도 전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중한 인연. 하나님은 한사람 한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계시다.

우리들 지원자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되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어떠한 조그마한 생명이라도, 벌레도 꽃도 받은 생명이 반짝 반짝 빛나지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지원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여러분 작은 지원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지금, 피해자에게는 필요한것입니다.

가와카미 목사님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저의 원고를 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 문의 】 (AM10:00~PM5:00) FAX 047-346-8675

부로그 : 「후쿠시마의 현실—후쿠오카 모모코의 목소리」 <http://ameblo.jp/aiwazion/>